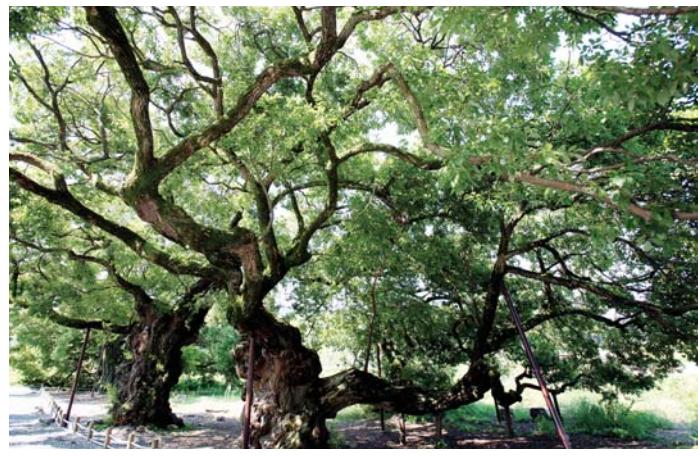


사회



광주 충효동 '430살 왕버들' 천연기념물

문화재청 지정 예고

광주시 북구 충효동 호수생태원에 있는 '430살 왕버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9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25일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자 판보에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한다.

1989년 3월 20일 광주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해 보호·관리해 오고 있는 이 나무(사진)는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령(樹齡) 측정 결과 430년(±10년)으로 밝혀졌다.

한 그루가 아닌 세 그루가 드물게 한 군데 줄지어 있으며 생육상태 또한 양호해 가치를 인정받았다.

충효마을 주민이 미를 앞에 나무를 심게 된 배경에는 풍수지리에 근거, 미를의 '안녕과 평온, 번영'을 위해 '비보림'(복부림·지형적 결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심었다.

또 이 왕버들나무는 의병장 김덕령(金德齡·1568~1596년)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심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산사태 취약지 556곳

전국 두번째로 많아…집중호우땐 막대한 재산피해 우려

광주도 4곳이나

지난해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15명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이 556곳으로 강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9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시행한 전국 산사태 취약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4006곳이 이르고, 이 중 산지가 많은 강원도 지역이 1173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556곳을 비롯해 경남(503

곳), 경북(451곳) 순으로 취약지가 비교적 많았다. 광주는 4곳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에서는 광양이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39곳 ▲나주·화순 34곳 ▲곡성·구례 33곳 ▲장흥 31곳 ▲해남 30곳 ▲완도 29곳 ▲고흥·강진 26곳 등의 순이었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은 발생 가능성에 대단히 높은 지역인 1등급과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지역(2~3등급),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4등급)

으로 나누는데 전남지역은 1등급이 12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태풍 '무이파'의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로 300여㏊(92㏊)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광양지역에 1등급(8곳)이 가장 많았고 여수 2곳, 곡성과 고흥 각각 1곳이었다.

광양시 봉광면 구서리 산 116번지·옥곡면 장동리 산 49번지·진상면 어치리 산 285~1번지, 여수시 중흥동 산 151~1번지, 곡성군 옥파면 죽립리 산 35번지, 고흥 동일면 봉영리 산 524~3번 등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 2등급은 175곳이었고, 3등급은 295곳, 4등급은 59곳이었다.

전남도는 산사태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훈련지 보강사업 등 산사태 유발요인 제거·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폭우가 내리면 마을 주민을 대피시키는 산사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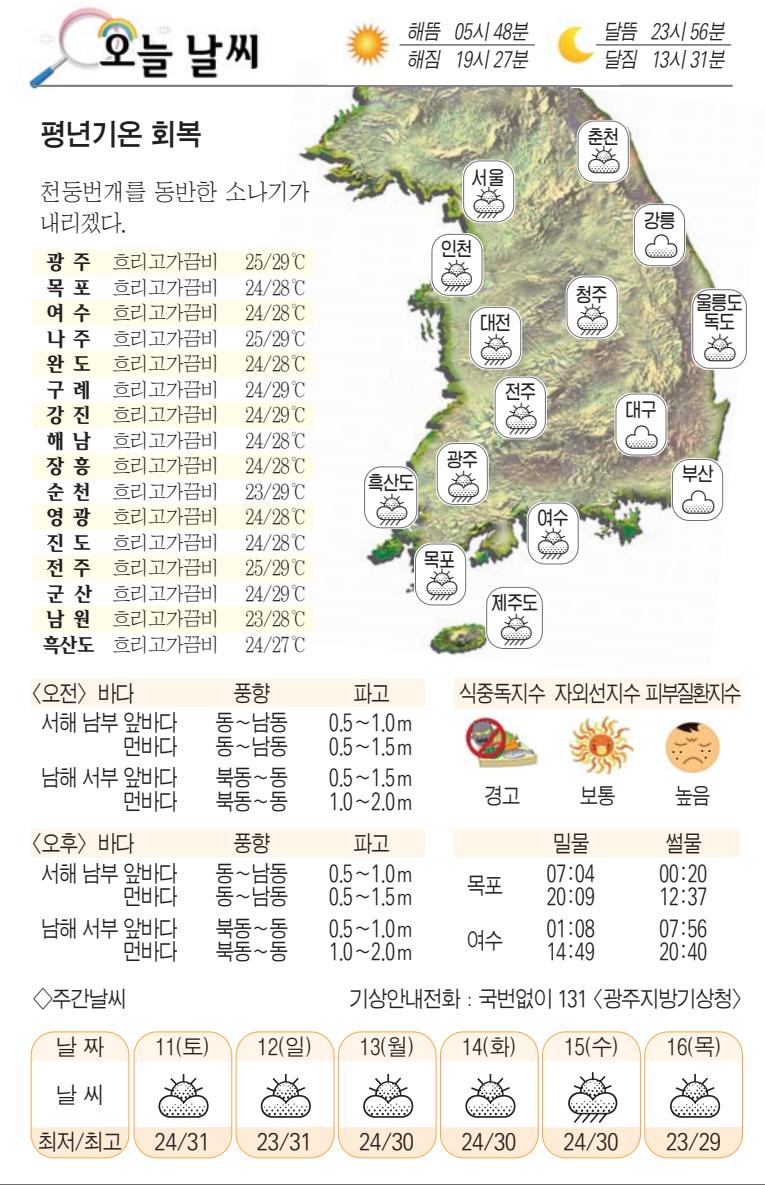
또 산사태 취약지역은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인 1등급과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지역(2~3등급),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4등급)

/이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 산사태 취약지역

(단위:개, m²)

시군	취약지	면적
합계	560	1,671,755
광주시 서구	4	35,000
여수	10	7,800
순천	21	56,430
나주	34	60,710
광양	50	176,497
담양	17	7,400
곡성	33	31,200
구례	33	94,500
고흥	26	25,200
보성	21	6,295
화순	34	234,267
장흥	31	52,750
강진	26	2,160
해남	30	304,100
영암	22	22,800
무안	17	16,000
함평	9	34,4
영광	30	23,000
장성	23	39,369
완도	29	139,330
진도	39	42,000
신안	21	260,763



광주·전남 더위 식히는 단비

폭염특보 해제

광주·전남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9일 밤 8시를 기해 모두 해제된 가운데 10일에는 곳에 따라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곳에 따라 10~60mm이며 서해안과內륙지방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8~29도 사이로 예상된다.

주말과 휴일인 11~12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고, 기온은 최고 31도까지 오르겠다.

11일 남해안 지역에서는 5~10mm의 비가 전망된다.

여수 세계박람회 폐막식이 열리는 12일, 여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10일 남해안지역에서는 억파도인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태권도 품새 잘 배웠어요”

주동안 진행되는 하계학교에서 학생들은 한국어교육과 한복 입어보기, 사물놀이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찾아가는’ 광주경찰

임산부·장애인 등

출장조사제 운영

“임산부·장애인·노약자는 직접 찾아가 조사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임산부·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출장조사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전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건강 상태와 장

애 정도를 알아본 뒤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원하는 시간대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임산부는 여자 경찰관이 전담 배치돼 사건 배당 이후 수사 진행과 출장 조사를 하게 된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수사1계장은 “인권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태권도 품새 잘 배웠어요”

주동안 진행되는 하계학교에서 학생들은 한국어교육과 한복 입어보기, 사물놀이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후면스피치 전문교육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 과정

설명을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공감을 이끌어 내는 사람!

어디서나 배울 수는 있어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휴먼스피치’에서는 전문교수의 특별한 지도를 받습니다!

탈출!!
스피치불안증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과정



후면스피치문화원 대표/원장 이 진학

• 휴먼스피치문화원 후면AD / 총괄Learn 대표
• 영남대학교 인문환경학과 강사
• 계명대학교 경기홍보학과 강사
• 후면포트 지도수습

• 글·문

•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실제 2007. 5.4

• 선언문작성 2010. 3. 선언문작성 그 전략 1998.

• 스피치문화의 과정과 진화 2005.

• 후면TV에서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 대상 강연 2004.

• 남강대학교에서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 대상 강연 2003.

• 후면스피치문화원 대표이사

• 후면스피치문화원 대표이사